

후원안내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8월 후원미사는 20일, 9월 후원미사는 17일, 10월 후원미사는 15일에 봉헌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후원회원은 성북구 보문동에 위치한 **노동사목회관**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문의 / 02.924.9970~1

2018년 6월 후원회원 후원금 사용 내역서*

수입내역

수입 총액	16,757,466	전월이월금	45,000
지 로	1,988,966	우리은행	6,316,000
국민은행	4,094,000	하나은행	976,000
조흥은행	95,000	신한은행	980,000
외환은행	487,500	제일은행	175,000
농 협	1,210,000	기업은행	360,000
우 체 국	30,000	교구보조	-

지출내역

항 목	지 출	세부내역	
단 체 찬 조 비	베들레헴어린이집	6,500,000	인건비, 주부식비, 교육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베다니아의 집	1,5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벗들의 집	925,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행사비 등
	마고네공부방	1,200,000	간식비, 교육비 등
	사랑의집	1,5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몽골공동체	200,000	제전비
	남미공동체	300,000	제전비
	상호문화센터	700,000	한글반 외 운영 프로그램 비용 등
	소 계	12,825,000	
	지원금	3,450,000	장기수선충당금 등
운영비	462,350	운영비 등	
지출 총액	16,737,350	잔액(이월금)	20,116

후원계좌 안내*

우리은행 454-006742-13-007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국민은행 093-01-0297-691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좋은이웃

www.seoulmigrant.net

2018. 7 / 제25호

펴낸날 2018. 7. 16 펴낸곳 이주사목위원회 펴낸이 남창현 편집 김평안 주소 (우)0287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95 노동사목회관 4층 이주사목위원회
전화 (02)924-9970~1 팩스 (02)924-9972 이메일 migrant@catholic.or.kr 홈페이지 www.seoulmigrant.net

신부님글

즐거움 중에도 주님을 섬겨리

무더위와 장마가 세상을 덮으면서 지내기 힘들게 하지만 가끔씩 찾아오는 맑은 하늘과 시원한 바람이 "참 좋다. 살만한 세상이야."하며 힘을 내어 살아가게 합니다.

후원회원 여러분과 그 가정에 하느님 아버지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부터 5일간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연해주를 순례하고 돌아왔습니다. 한때 이곳에는 25만 명 정도의 한국인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번 순례지는 우리 민족들이 이주하여 정착하여 살았던 곳으로 최초의 정착지였던 지신현 마을과 우스리스크 주변을 순례하면서 희망을 위해 정착하려는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러시아와 일본의 비밀협약에 의해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이주를 당했던 라즈돌리노에 역과 항일운동을 위해 싸웠던 인물들의 장소들을 견학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살았다고 하는 블라디보스토크의 신한촌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고 기념비만 예전의 흔적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서 이 흔적마저 잊혀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이번 순례에 특별했던 것은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를 당했던 이주민들이 세월이 지나 본인과 그들의 부모가 정착했던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 문화를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특별한 날에 한복을 입고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한국에 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나 우리는 떠났던 자리로 돌아가려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많은 이주민들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강제 이주되었던 우리나라 이주민이 겪었던 어려움을 똑같이 경험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더 나아진 삶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지금 제주도의 난민에 대한 일들을 지켜보면서 마음은 더 무겁기만 합니다.

"저희 조상은 떠돌아다니는 아람이었습니다.(신명 26:5) "너희는 이방인을 억압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다.(탈출 22:20) "너희는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듯이 맞아들였다.(마태 25:35)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주민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구교구 교구장이신 강우일 주교님은 사목서한에서 지난 세기 초부터 우리 민족이 겪었던 이주의 아픔을 언급하시고 현재 700만 명에 이르는 우리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 타향살이하는 한국의 이주민을 언급하셨습니다. 다른 나라에 사는 우리 친척이나 가족이 그 나라 국민에게 배척당하고 외면당해 내쫓긴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분노하겠느냐, 이런 우리가 우리를 찾아온 난민을 문전박대하면 우리는 무슨 낮으로, 무슨 자격으로 하느님께 자비를 구하고 복을 청할 수 있겠느냐고 하시면서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배척은 인간의 도리에 대한 범죄"라고 하십니다.

지금은 두렵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지 못하기에 두렵고 겪어보지 않았기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주민을 제대로 알려고 하고 그들과 가까이 있으려고 한다면 그들은 남이 아니라 이웃으로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불편한 시기를 잘 이겨낼 때 우리의 신앙의 삶도 풍성해질 것입니다.

후원회원 여러분과 저희 이주사목위원회와 희망의 여정을 함께 해주시기에 항상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후원회원 여러분과 가정에 늘 함께 하기를 기도하면서 인사드립니다.

2018년 7월 여름 장마의 중간에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부위원장 김 평 안 마르코 신부

공동체 소식

위원회 소식*

4대종단(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천주교, 대한불교조계종, 원불교) 이주인권협회의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에 관한 호소문입니다. 성명서 본문을 올려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상처 입은 나그네를 따뜻하게 환대해 주십시오.

“그들이 곧 우리입니다”

천혜의 자연풍광을 자랑하는 평화의 섬 제주가 예멘 난민 문제로 들쭉거리고 있습니다. 오랜 내전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생명을 위협받는 예멘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찾아 제주로 찾아오면서 난민에 대한 근거없는 혐오와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근거없는 루머를 바탕으로 혐오와 공포를 조장하는 일각의 움직임에 큰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멘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쪽에 위치한 나라로 독립과 분단을 거쳐 1990년 통일 국가가 되었지만 또다시 분열되었고 여기에 종교갈등까지 더해지면서 내전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상이 되어버린 잔혹한 폭력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잃어버린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 우리 곁으로 피신해 왔습니다. 지치고 불안한 모습으로 어깨를 떨고 있는 예멘사람들을 보면서 몇 해 전, 아빠 엄마의 품에 안겨 난민선에 올랐다가 목숨을 잃었던 시리아의 3살 어린이 아일란 쿠르디를 떠올립니다. 우리가 저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또 다른 아일란 쿠르디가 되어 죽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멘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찾은 것은 대단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일상의 폭력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사랑하는 가족들과 안전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우리 곁으로 피신해 온 것입니다. 그들의 현재 모습 속에서 식민지와 전쟁을 겪었던 우리들의 아픈 과거를 떠올리게 됩니다. 살인적인 폭력을 피해 평범한 삶을 찾아 우리 곁에 온 나그네를 내쫓아서는 안 됩니다. 오랜 내전으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금 인간다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따뜻하게 맞이하는 성숙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근거 없는 혐오와 공포를 조장하는 모든 목소리 앞에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외쳐주십시오. 전쟁을 피해 피신해 온 나그네들에게 한국이 은혜의 나라가 되게 하십시오. 죽음의 공포를 넘어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상처입은 나그네를 따뜻하게 환대하고 품어 안음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진정한 평화의 나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 제주도민들이 느낄 혼란스러움과 우려에 깊이 공감합니다. 제주도와 대한민국 정부는 제주도민들의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고 나그네와 더불어 사는 삶이 결코 위험하지 않음을 피부로 절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가입한 UN난민협약과 이미 존재하는 난민법에 따라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찾아온 나그네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십시오.

헤롯의 잔혹한 폭력을 피해 이집트로 피신했던 난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 붙여 사는 사람을 구박하거나 학대하지 마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 붙여 살지 않았느냐?(공동번역 출애굽기 22:20) 스스로 나그네가 되어 구도자의 길을 떠났던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존재하는 모두가 부처다”(불경, 원불교정전) 그렇습니다. 피난처를 찾아 이곳까지 온 난민들이 곧 부처님이며, 저들이 찾아온 이곳 대한민국이 바로 예수님의 피난처입니다. 어찌 우리가 부처를 내칠 수 있으며 아기 예수님을 잔인한 헤롯에게 돌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종교인들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며 사랑하는 일을 우리의 사명으로 고백하며, 예멘 난민들이 대한민국의 품 안에서 안정을 되찾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기도하며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생명을 찾아 이 땅에 온 예멘 난민들, 그리고 그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상생의 길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빕니다.

2018년 6월 25일

4대종단 이주·인권협의회
천주교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전국협의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원불교 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주민소위원회

몽골공동체 캠프 소식*

몽골공동체는 7월 7~8일에 강원도 양양으로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캠프와 같은 개인의 여가시간이 없는 이들에게 이번 캠프는, 고향과 가족을 떠나 타국에서 일하며 쌓인 그동안의 스트레스도 풀고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기쁨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베들레헴어린이집 소식*



▲ 책읽기(성북동 주민센터 도서관)

▲ 전쟁기념관 견학

▲ 미사 후 축복